

TV 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토크쇼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폭풍의 여자>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골든 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40 지구촌 뉴스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황홀한 이웃>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그래도 푸르른 날에>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토크쇼	40 반려동물극장 단짝(재)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 3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네트워크 특선 아름다운 추억 아름다운 사람들 55 시청자 칼럼 우리사는 세상	05 수목드라마 <착하지 않은 여자들>(재)	00 주말드라마 <장미빛 연인들>(재)	10 KBC 생활뉴스 30 세계문화탐방 <지구촌 속세>(재)
12 4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 12 55 바른말 고운말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미니시리즈 <앵그리맘>(재)	00 SBS12뉴스 45 닥터 365 55 건강클리닉
1 50 김부장의 뉴스통	00 대조영(재) 55 TV종교 빨간자전거(재)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30 키즈 사이언스5(재)	55 날씨와 생활
2	00 우리말 겨우기(재)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역사저널 그날(재)	30 똑?똑! 키즈스쿨	00 토크서트 화통
3 00 직언직설	00 솔 터(재) 05 한국인의 밥상(재)	45 후토스(재)	00 호남 고속철도 개통식 35 경제 매거진 M 스페셜	00 SBS 뉴스 10 SBS 이슈인 사이트
4 20 레도나마	00 KBS 뉴스 4 10 결어제 세계속으로(재)	10 아동공부책상 위키 40 TV유치원 공대공	20 앙코르 특선 다큐멘터리 하늘로만 나는 중국 <맛의 귀로>	00 이야기 보따리 30 푸르기 탐구생활
5 3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10 애니월드 40 동물의 세계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라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 365(재)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00 KBS 뉴스 7 30 필통	50 일일드라마 <달콤한 비밀>	15 일일연속극 <불굴의 차여사>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저널 따따따 20 일일드라마 <달려라 장미>
8 20 관찰 카메라 24시간	25 일일연속극 <당신만이 내사랑>	30 반려 동물 극장 단짝 55 비타민	5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아>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 발굴단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시사토크 뉴스속 사람들 55 솔터	00 수목드라마 <착하지 않은 여자들>	00 수목미니시리즈 <앵그리맘>	00 드라마 스페셜 <냄새를 보는 소녀>
11 00 나는 몸신이다	00 KBS 뉴스라인 40 문화 빅뱅 윤건의 더 콘서트	10 투명인간	15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15 한 밤의 TV연예
12 50 먹거리 X 파일(재)	50 동행(재) ①:50 일일 특특(재)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45 뮤비뱅크	35 MBC 뉴스 24 ①:05 나누면 행복	35 나이트 라인 ①:05 씨네포토(재)



김재중·최진혁·성민

연예계 동갑내기들 나란히 입대

“조용히 입소하겠다” 이벤트·SNS 통해 팬들과 미리 인사

1986년생 동갑내기인 J.Y.J의 김재중과 슈퍼주니어의 성민, 배우 최진혁(이상 29)이 31일 나란히 입대한다. 이들은 이날 오후 각각 경기도의 한 사단, 경기도 부천 17사단 등지로 입소에 현역으로 복무한다. 달리진 풍경은 세 사람 모두 “조용히 입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이다. 그간 연예인들은 머리를 짧게 자른 채로 입대 현장에 모인 팬들에게 인사하고 언론매체 인터뷰에도 나왔으나 최근 연예인들은 소란스럽지 않게 입소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입소 장소와 시간을 외부에 함구하기도 한다. 김재중의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조용히 입대하고 싶다는 김재중의 강한 의지가 있어 소속사도 이를 존중하고자 한다”며 “또 입소 부대로부터 훈련소 입구가 복잡해 취재가 어렵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민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도 “조용히 입대하고 싶다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인터뷰 없이 차를 타고 부대로 들어간다”며 “차 안에서 팬들에게 인사는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슈퍼주니어의 신동도 지난 24일 경기도 연천 28사단 신

병교육대로 입소할 때 차를 타고 조용히 부대로 들어갔다. 이들 같은 한류 스타들의 입대 현장에는 국내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지 팬들이 찾아와 플래카드를 흔들며 환송하고, 스타는 경례를 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게 흔한 풍경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입대 전 마지막 팬미팅이나 공연 등의 이벤트를 열어 팬들에게 인사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리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다. 김재중은 지난 28~29일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에서 팬미팅 콘서트를 열어 “즐겁게 웃으며 머리도 깎고 그렇게 기분 좋게 다녀오겠다. 웃으면서 잠시만 이별하자”고 인사했다. 또 3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는 “짧아지고 있다, 곧 뺨뺨이로 변신.(중략) 우리 팬들 때문에 많이 웃고 웃고 소중한 시간 보내고 갑니다”란 글을 올리며 머리를 짧게 자른 모습을 공개했다. 최진혁도 같은 날 인스타그램에 “머리 잘랐어요. 잘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며 짧아진 머리를 공개했다.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9:40 토크쇼 부모-그녀의 품격
05:40 성공시대 가능한한국(재)	10:30 최고의 요리비결
06:10 세계의 눈(재)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07:00 뽀빠에 친구(재)	11:10 다큐 오늘
07:15 책과 광(재)	11:20 세계테마기행
07: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2:00 EBS 정오 뉴스
07:45 고마비사 타요(재)	12:10 결자 다큐멘터리
08:00 당동영 유치원	13:05 지식채널e
08:20 로보카 폴리(재)	13:10 엄마 없이 살아보기(재)
08:35 방귀대장 뽕뽕이	13:40 사이틴
08:50 코코콩 3	13:50 할랄라 뽀빠에
09:05 원더볼츠(재)	14:00 마이의 모험
09:20 풍선 꼬끼리 발루보	14:15 정글북 2
09:35 이암! 스페이스 정글	14:30 머털도사

15:00 초능력 특공대	19:30 EBS 뉴스
15:15 두기 탐험대	19:50 사신에서
15:30 뽀빠에 친구	20:40 다큐 오늘
15:45 부흥! 부흥! 브루미즈	20:50 세계테마기행
16:00 당동영 유치원(재)	<세이쉴룬도 대탐험>
16:20 원더볼츠	21:30 한국기행
16:30 우당탕탕 아이쿠	<우리는 섬으로 간다 신안>
16:45 책과 광	21:50 EBS 다큐 프라임
17:00 방귀대장 뽕뽕이(재)	<위대한 바빌론>
17:15 풍선 꼬끼리 발루보	22:45 극한직업
17:30 두디대공	23:35 세계건축물 아름다운
17:45 로보카 폴리	<미국 자동차 횡단 7500km>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24:05 지식채널e
19:00 곤	24:10 한국영화특선 <시>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II-읽재개념>	12:10 올림포스 <국어II-읽재개념>
00:50 " <고교 영어독해-junior>	13:05 " <고교 영어독해-junior>
01:40 " <화통과 통계>	14:00 2016 수능특강 <국어b>
02:30 " <기하와 벡터>	14:50 올림포스 <화통과 통계>
03:20 " <수학II>	15:40 " <기하와 벡터>
04:1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16:30 " <수학II>
	17:20 올림포스 평가문제집
05:00 뉴탐스런 <화학I>	18:10 뉴탐스런 <화학I>
06:00 " <지구과학I>	19:20 " <지구과학I>
06:40 " <세계지리>	20:00 EBS 스타강사 특강 <영어a>
07:30 " <법과 정치>	20:50 2016 수능특강 <영어a>
08:20 2016 수능개념 <윤리주의 영어>	21:50 " <수학I a>
09:10 " <이은주의 수학II>	22:30 박용의 이은주 만나는 경제 <영어a>
10:10 2016 수능특강 <수학I>	23:00 2016 수능특강 <국어b>

EBS플러스2

07:00 2015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5:50 "	<사회 4-1>
07:30 9-7급 공무원 시험대비 강좌	16:20 "	<사회 5-1>
08:00 행정사 시험대비 강좌	16:50 "	<사회 6-1>
08:30 9-7급 공무원 시험 문제풀이	17:20 만점왕 평가문제풀이	
09:10 TV 중학 <국어①②>	18:00 TV 중학 <전과목 5-1>	
09:50 " <수학1(하)>	18:40 " <국어⑤⑥>	
10:30 " <도덕1>	18:40 " <수학3>	
11:10 " <국어③④>	19:20 필독중학국어 <시>	
11:50 " <수학2(하)>	20:00 EBS 인문학특강	
12:30 EBS 특강	20:50 EBS 기획시리즈	
13:10 중학 중·기시험 대비 문제풀이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22:00 중학 중·기시험 대비 문제풀이	
13:50 " <사회1-1>	22:00 " <역사2-1>	
14:30 " <역사1-1>	22:40 " <과학3-1>	
15:20 초등 중·기 성취도 <사회 3-1>	23:20 필독 <사회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1일(음 2월 13일 丁未)

子	48년생 어떻게 처세 하느냐에 따라서 인연의 선악이 달라지느니라. 60년생 회자정리 하는 법이다. 72년생 연결 고리를 과감하게 단절할 수 있어야겠다. 84년생 기운이 상하여 길지로 안내하는 판도이다. 행운의 숫자 : 67, 90
丑	49년생 점점 불합리함을 차치하고 유용한 요건을 이루어 나가는 국세로다. 61년생 길사로 연결되고 있으니 기대에 불만하다. 73년생 임시방편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85년생 속단은 글물이니 차분하게 생각하자. 행운의 숫자 : 52, 06
寅	38년생 초심을 잃지 않다면 능히 버티 낼 수 있을 것이다. 50년생 실리가 따를 것이다. 62년생 실수가 생길 수도 있다. 74년생 호기를 잡히게 될 것이다. 86년생 기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14, 40
卯	39년생 대응하기가 힘들 것이다. 51년생 함께 한다면 충격을 완화 할 수도 있다. 63년생 오늘 추진했을 때 효율성이 가장 크겠다. 75년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답이 보인다. 87년생 끝내 미련을 떨쳐 버릴 수 없으리라. 행운의 숫자 : 75, 23
辰	40년생 기서유역의 이치에 의해서 양지가 움직이 되고 움직이 양지로 바뀌리라. 52년생 직접 다루어야 할 문제다. 64년생 이면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알아야한다. 76년생 단력적이었던 진척을 보이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8, 08
巳	41년생 부닥하러 갔다가 오히려 창을 들고 오는 격이로다. 53년생 시비를 가리기 전에 수습부터 해야 하는 마당이다. 65년생 지나치다면 부족함만 못하느니라. 77년생 체계를 잡고 요령대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33, 81

午	42년생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54년생 고정 관념을 버리지 않으면 상당히 곤혹스럽겠다. 66년생 막힌 물꼬가 시원하게 트이는 이치이다. 78년생 원하는 방향으로의 과감한 전환이 절실한 때이다. 행운의 숫자 : 85, 25
未	43년생 뜻밖의 만남으로 인해 재물이 들어오겠다. 55년생 관세와 변화가 가져 올만한 일이 생긴다. 67년생 짐작이 가더라도 굳이 내색할 필요는 없겠다. 79년생 옛 것이 훨씬 더 나를 잊어, 구관이 명관이다. 행운의 숫자 : 44, 03
申	44년생 쓸모없는 것은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6년생 상대의 의중을 정확히 헤아릴 줄 알아야만 한다. 68년생 의형만으로 인식하다가 큰일 나게 된다. 80년생 전적인 신뢰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행운의 숫자 : 92, 77
酉	45년생 평가에 좌우되지 말고 소신껏 행하자. 57년생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69년생 들고 나는 것이 균형을 이루게 되는 시점이다. 81년생 맹목적인 확신은 소모적일 뿐이다. 행운의 숫자 : 18, 93
戌	46년생 망망하여 왔던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58년생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다. 70년생 항상 똑같이 보아 왔던 문제가 있다. 82년생 허황된 일이나 빨리 포기 할수록 유리하다. 행운의 숫자 : 65, 58
亥	47년생 지나치다면 많은 부작용을 조래하게 되리라. 59년생 관점의 차이에 변화가 생길 것이다. 71년생 바이흐로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양상을 띤다. 83년생 파도가 높으니 큰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37, 9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밥 먹고 드라이브하고 런던 데이트 평범했죠”

수지, 미쓰에이 새 앨범 소개 중엔 이민호 언급



“런던에서 딱히 특별하게 한 건 없습니다. 다른 연인처럼 밥 먹고 드라이브하고 평범하게 만났습니다.” 걸그룹 미쓰에이(Miss A)의 수지(21·사진)는 30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언론 대상 쇼케이스에서 연애 상대인 한류스타 이민호(28)와의 ‘런던 데이트’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미쓰에이가 1년5개월 만에 발표한 새 앨범 ‘컬러스’(Colors)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쇼케이스는 멤버 수지가 이민호와 연애를 인정한 후 처음 언론과 만나는 자리였다. 이 때문에 언론의 관심은 새 앨범보다 두 사람의 연애에 집중됐다. 수지는 이러한 관심을 예상한 듯 질의응답이 시작되자마자 이민호에 관한 얘기로 운을 땀다. 수지는 “지난주 내내 바쁘게 해 드려 죄송하다. 많이들 궁금하시겠지만, 이 자리가 1년5개월 만에 컴백하는 자리여서 조심스럽다. 오늘은 앨범과 음악 얘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면서 자신의 연애에 관한 질문에 먼저 답하겠다고 밝혔다. 수지는 이 자리에서 “이민호의 어떤 점이 매력적이냐”는 질문에 “배려심이 깊고 따뜻한 사람 같아서 그런 부분에 호감을 느낀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런던 데이트에 관해 “화보 촬영이 겹쳐서 런던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 딱히 특별하게 한 건 없다. 드라이브 조금 하고 밥 먹고... 평범한 연인들처럼 그렇게 보냈다”고 말했다. 수지는 답변 중간 말을 더듬거나 문장을 제대로 잇지 못하는 등 다소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의 계획에 관한 질문에는 “둘 다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 서로 응원하면서 각자 활동 열심히 하겠다”면서 “잘 만나

고 있으니까 응원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나머지 멤버들은 수지가 답변하는 모습을 당당히 긴장된 듯 지켜봤으며 수지가 답변 후 어색해하자 조심스럽게 박수치며 격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화 ‘건축학개론’ 등으로 ‘국민 첫사랑’ 자리를 꿰찬 수지와 ‘꽃보다 남자’, ‘상속자들’로 한류 스타로 떠오른 이민호의 연애 사실은 지난 23일 한 인터넷 매체가 두 사람이 서울과 영국 런던을 오가며 데이트를 하는 사진을 보도하면서 대중에게 공개됐다. 걸그룹 미쓰에이(Miss A)가 1년5개월 만에 발표한 앨범 ‘컬러스’(Colors)의 타이틀곡 ‘다른 남자 말고 너’는 이날 발표와 함께 주요 음원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다른 남자 말고 너’는 씨스타의 ‘터치 마이 바디’를 프로듀싱한 블랙아이드필름이 작곡했으며 미쓰에이 멤버 민과 수지가 작사에 참여했다. 중독성 강한 멜로디에 대중적인 힙합과 트래크 리듬이 인상적인 곡이라고 JYP는 소개했다. 새 앨범에는 ‘다른 남자 말고 너’를 포함해 ‘한걸음’, ‘러브송’, ‘늑아’ 등 총 6곡이 수록됐다. 수지와 민은 각각 ‘아이 코드’와 ‘스타의 가사’를 직접 썼다.

이병헌·이민정 부부 득남

“산모와 새 생명만큼은 따뜻하게 봐달라”



배우 이병헌(45)과 이민정(32) 부부가 31일 득남했다. 두 배우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와 엠에스팀엔터테인먼트는 이날 함께 보도자료를 내고 “이민정이 오늘(31일) 이른 아침 서울의 한 병원에서 건강한 남아를 출산했다”고 밝혔다. 이민정은 다음 달 초 출산 예정이었지만 진통을 느껴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다고 엠에스팀 관계자가 전했다. 이병헌은 할리우드 영화 ‘비욘드 디시트’ 촬영차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지난 27일 귀국해 아내의 곁을 지켰다. 이병헌은 이날 별도로 배포한 입장 자료에서 “그동안 실망시킨 부분들을 감으며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부디 산모와 새 생명만큼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달라”고

밝혔다. 이병헌은 “가족이라는 단어가 감사하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순간”이라며 “무엇보다 감사한 새 생명의 탄생을 계기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 중”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